

Capro 가격 끝내 2000달러 돌파!

공급타이트 지속으로 25달러 상승 ... CFR Asia 톤당 2015달러 기록

아시아 수요증가와 벤젠 가격상승으로 2000달러대 돌파가 유력했던 CPL(Caprolactam)의 CFR Asia 가격이 톤당 25달러 상승한 1995-2015달러대를 형성했다.

공급타이트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하자 구매가와 판매가의 적정선인 1995-2010 달러대에서 가격이 형성됐는데 9월 하반기 인도가격은 톤당 2050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몇몇 일본 생산기업들은 9월 아시아 CP를 8월보다 150달러 상향 조정한 2000-205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9월3일 중국 거래가격은 최고 2055달러까지 제시되고 있어 하반기 중국 수출가격을 2100달러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2달 동안 지속된 코오롱의 파업이 중단됨으로써 구미공장의 나일론 4500톤 중합 플랜트가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돼 카프로의 CPL 국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프로는 구미공장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4500톤의 공급차질을 효성과 KP케미칼에 1500톤을 공급하고 3000톤은 수출함으로써 만회했었다.

구미공장 재가동으로 Capro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10월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어 내수판매보다는 재고물량을 비축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9-11월 일본의 Toray, Mitsubishi, Sumitomo 및 Ube 등이 모두 플랜트 또는 라인을 1달 동안 Shut Down할 예정이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9/10>